

2012년 10월 창간호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창간호

박물관, 바다를 바라보다



Contents

Part 01 첫만남 박물관, 바다를 바라보다	01
Part 02 인사말 나의 바다, 우리의 미래	04
Part 03 열린마당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을 축하하며 국립해양박물관에 바란다	05
Part 04 박물관 둘러보기 상설전시 박물관 전시이야기 1 기획전시 고대의 항구 테마전시 바이킹, 바다로에의 위대한 도전	07
Part 05 소장품 이야기	11
Part 06 박물관 사람들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에 부쳐	13
Part 07 박물관 교육행사	14
Part 08 박물관 소식	15
Part 09 관람후기	16

海印三昧



2012년 7월 9일 개관

박물관건축개요

건립부지/ 건축연면적: 45,444㎡ / 25,870㎡
주요시설: 상설전시관(8개), 기획전시관(1개), 어린이박물관, 해양도서관, 수족관, 대강당, 4D영상관

박물관연혁

- 2007.09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2008.06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09.07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09.12 공사착공
- 2012.04 건물준공
- 2012.07 개관

NATIONAL MARITIME MUSEUM

인사말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바다를 개척해 나가고 해양력이 강한 나라가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세계 각국은 바다의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고 해양분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부상하고 있는 해양의 중요성에 걸맞을 만한 규모의 해양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해양에 대한 국민의 진취적 기상을 높이고 해양강국의 랜드마크로서의 종합 해양박물관 건립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2006년 국립해양박물관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고 6년 7개월이라는 긴 기다림과 준비 끝에 2012년 7월 9일 국립해양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신설박물관으로 유물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공개구매와 기증, 이관 등을 통하여 1만 2천여 점의 유물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립해양박물관이 건립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유물 기증자, 기업체 및 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듯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과 각계각층의 협력으로 우리는 국내최초의 종합해양박물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은 한 사회의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라 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사라져가는 해양문화, 해양과학과 산업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전시를 통해 우리 바다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해양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해양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전해 나가는 것이 국립해양박물관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박물관 웹진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많은 일의 첫걸음입니다.

웹진은 박물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박물관을 아껴주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입니다. 웹진을 통해 우리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문화를 누리는 큰 마당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관장 박상범



열린마당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을 축하하며

국립해양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어지는 종합해양 박물관으로서 해양 관련 유물의 수집, 연구, 전시 및 체험을 통해 국민에게 체계적인 해양미래비전의 제시와 해양의식 고취를 목표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혁신도시 개발지구 내에 건립되었다.

또한, 매립지라는 열악한 부지여건 속에서도 지하 40M까지 파일을 설치하는 난공사 끝에 새로운 인공지반(데크)을 형성하였다. 인공지반 하부엔 바다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해양도서관과 수변 산책로, 야외공연장 등이 있으며, 인공지반 상부엔 친수체험공간, 바람의 언덕, 심해 잠수정과 요트 등 다양한 옥외전시시설과 조경시설, 박물관 전시시설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해양공원을 조성하였다.

전시구성

박물관의 전시는 '나의 바다,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해양 과학, 산업, 영토, 역사, 인물,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다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어린이박물관, 4D영상관, 대형 아쿠아리움(직경 11M, 수심 4.8M, 총 370톤의 수조에 300여 마리의 어류) 등으로 구성하였다.

박물관의 디자인

특히, 국내 최초의 종합해양박물관으로서의 상징성, 바다를 주제로 한 박물관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비정형 3차원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역삼각형의 유려한 유선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BTL 민자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국내에 비정형 3차원 설계기법이 생소한 시기였으므로, 이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정림건축에서는 수차례 Mock-up 모형제작과 다양한 3D 설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초기 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1년에 걸친 협상기간과 2년에 걸친 공사 기간동안 BTL 민자사업 선정 당시 디자인 개념과 계획안을 실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건축설계분야, 건설시공분야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끊임없는 협의와 지속적인 현장 Mock-up 테스트를 거쳐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로서 국립 해양박물관이 해양 강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복수(정림건축 이사)

국립해양박물관에 바란다

부산에 자리한 국립해양박물관

바다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국립 해양박물관이 지난 7월 드디어 문을 열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을 위시하여 땅에 관한 국립 박물관은 전국에 12개가 산재하여 있음에도 바다에 관한 국립박물관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전환은 대부분 바다를 매개로 일어났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역사는 위지 동이 편에 따르면 고조선의 마지막 준왕이 좌우에 신하와 궁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삼한 땅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한다.

어찌 그뿐인가, 양곡 등 조세품을 배로 실어 나르지 않았다면 조정이 하루를 지탱해 나갈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이를 전문적으로 담아내는 해양박물관이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의 대륙 중심적 사고가 주된 원인이겠지만, 이에 덧붙여 소위 말하는 '有史無書', 즉 바다에 대한 기록이 빈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우리 조상은 오랜 세월을 걸쳐 활발하게 해양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삼면의 해양환경이 서로 달라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립해양박물관은 각 해역권에 하나씩 최소한 세 곳에 설립되어야 마땅하다. 뒤늦게나마 국립해양 박물관이 '해양수도' 부산에서 문을 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립해양박물관에 바란다

이런 관점에서 국립해양박물관에 두 가지를 건의하고자 한다. 우선 유구한 해양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 해양박물관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산을 상징하는 오륙도가 조망되는 멋진 현대식 건물 안에 소중한 해양문화재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말이다. "조행일록", 더들리의 "해도첩" 등 귀중한 자료와 조선통신사선 1/2 크기의 실물 복원 등 훌륭한 전시물이 있지만, 그것만으론 크게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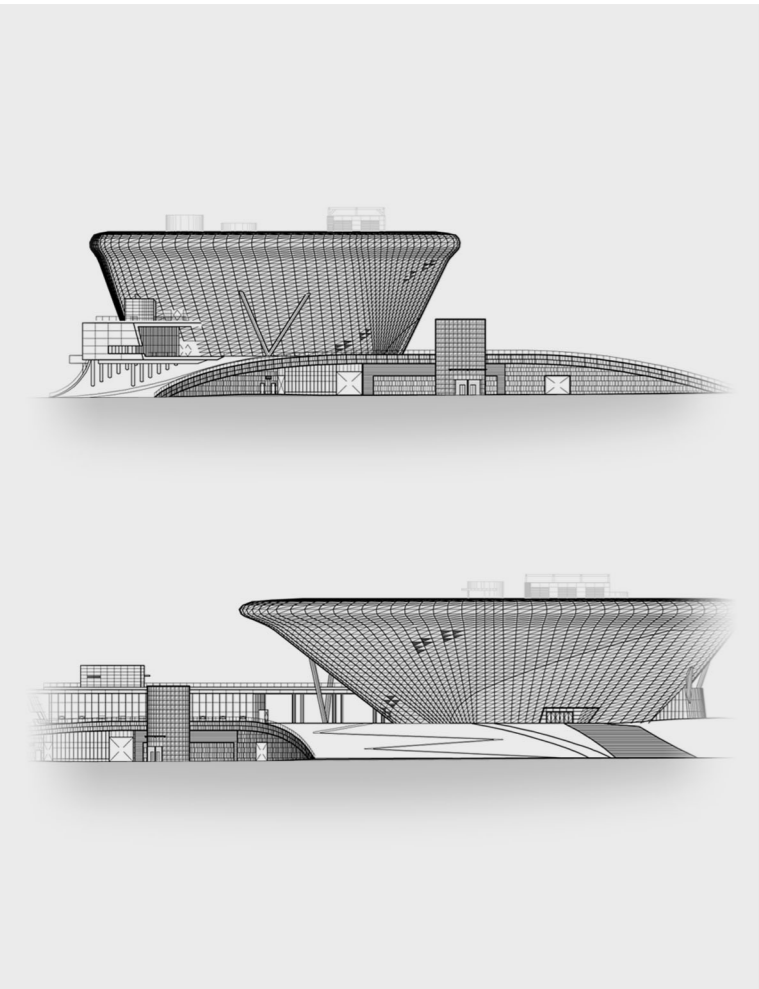


제한된 예산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해양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관련기관의 협조와 국민에게 잘 공보하여 협조를 받아내는 방법은 물론, 상고시대부터 우리와 뱃길로 맺어 온 이웃 나라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바다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키는 홍보 및 교육의 역할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시물을 관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여 바다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드웨어의 한계는 IT기술을 이용한 각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바다를 이해하고, 바다의 소중함을 인지하여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어렵게 출범한 국립해양박물관이 우리나라 해양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솟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박물관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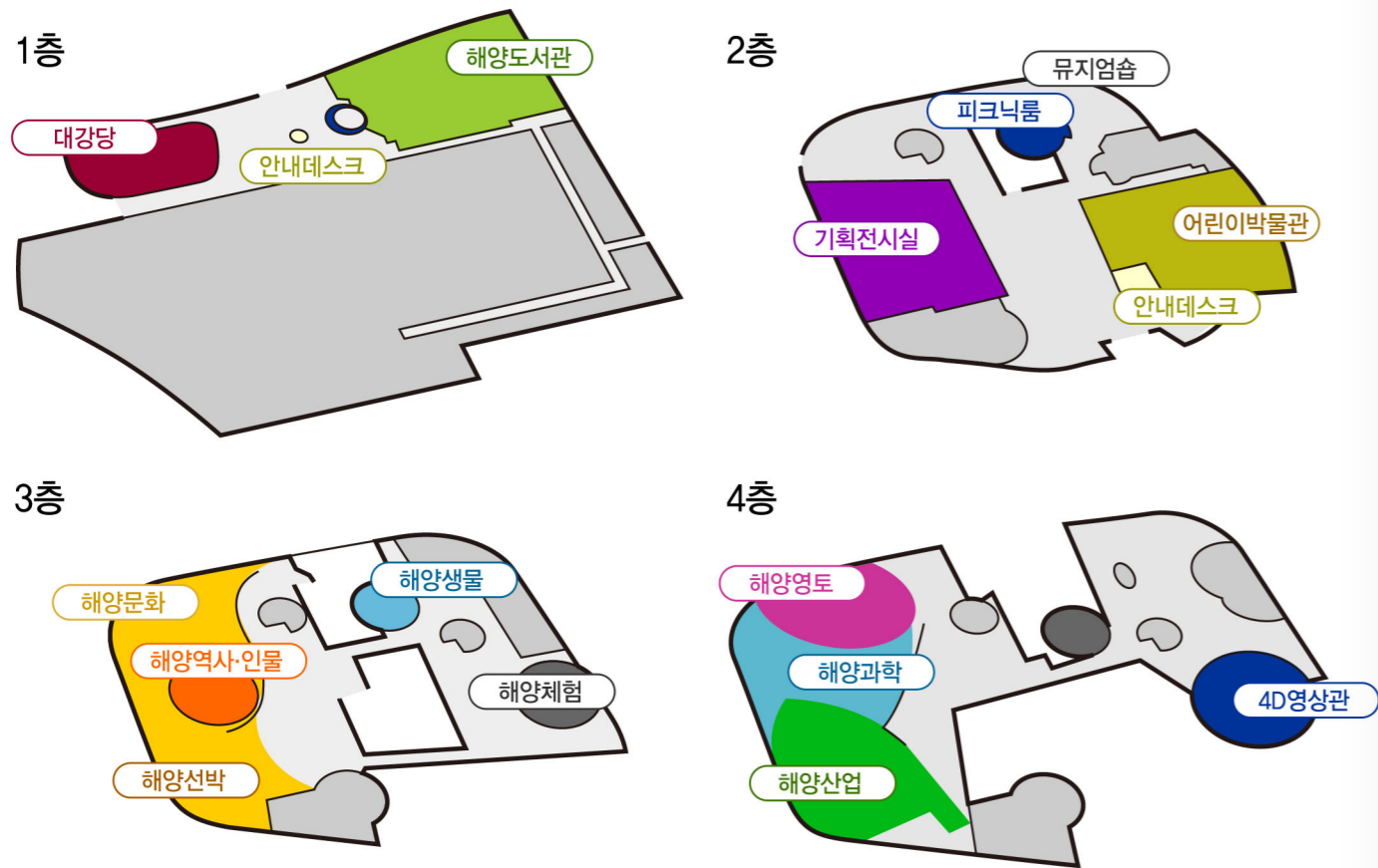
최형순(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내 최초의 종합해양박물관이라는 위상과 가치를 인식하여 사업 초기부터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혁신도시 개발지구 매립 지역을 수차례 현장 답사하고, 최근에 지어진 해양박물관과 아쿠아리움 등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의 해양 문화와 역사가 가지는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최신 전시 공간구성 및 전시기법으로 구상하기 위해 세계적인 전시건축설계사 C7A (Cambridge Seven Associates)와 협업하여 계획하였다.

박물관 둘러보기

미래 삶의 터전인 우리의 해양을 이해하고 해양개척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국립해양박물관이 첫 삼을 뜬지 2년 6개월 만에 개관을 맞았다. '나의 바다, 우리의 미래' 라는 컨셉으로 해양문화, 해양역사·인물, 항해선박, 해양체험, 해양산업, 해양생물, 해양영토, 해양과학 등 해양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첫 종합 해양박물관이 탄생하였다.



상설전시

박물관 전시이야기 1

국립해양박물관의 전시컨셉트는 '나의 바다, 우리의 미래'이며, 상설전시 1·2, 해양생물관, 해양체험관, 기획전시실, 어린이 박물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시실은 바다의 열린 이미지를 따서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다. 개방감 있는 로비에 전시실까지 열려 있고 또한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방감이 더해져서 완전히 열려있다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이다. 여기에 전시실 내부도 열린 공간을 지향하게 되면서 강제동선을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2층 정문에서 바라본 전시장

우리 박물관은 전시배치 시 공간을 나누어 유물을 배치하면서 자유로운 관람 동선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박물관 전체의 열린 이미지와 연계하기 위함이다. 박물관은 좌우로 공간을 배치하고 가운데는 트여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 주출입구는 2층에 있으며, 들어서게 되면 왼편으로 전시공간이 2~4층에, 오른편으로는 체험공간과 휴식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2층 메인 로비를 사이에 두고 왼편으로 기획전시실, 오른편으로 어린이박물관을 두었다.

어린이박물관은 '공간동화' 개념을 도입하여 어린이박물관이 하나의 스토리 를 가지고 배치되도록 공간구성이 되어있다.



2층 어린이박물관

박물관의 주된 전시공간은 상설전시 1·2로 3층과 4층에 배치되어 있다. 상설전시 1실과 2실의 시작 부분에는 오션플랫폼이라는 공간을 두어 각 실에 대한 도입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층 오션플랫폼은 박물관의 도입부에 해당하는데 나침반 모형물과 함께 바다를 항해할 때 필수적인 도구를 배치하여 박물관이라고 하는 '바다'를 탐험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형기(국립해양박물관 전시팀장)

3층 오션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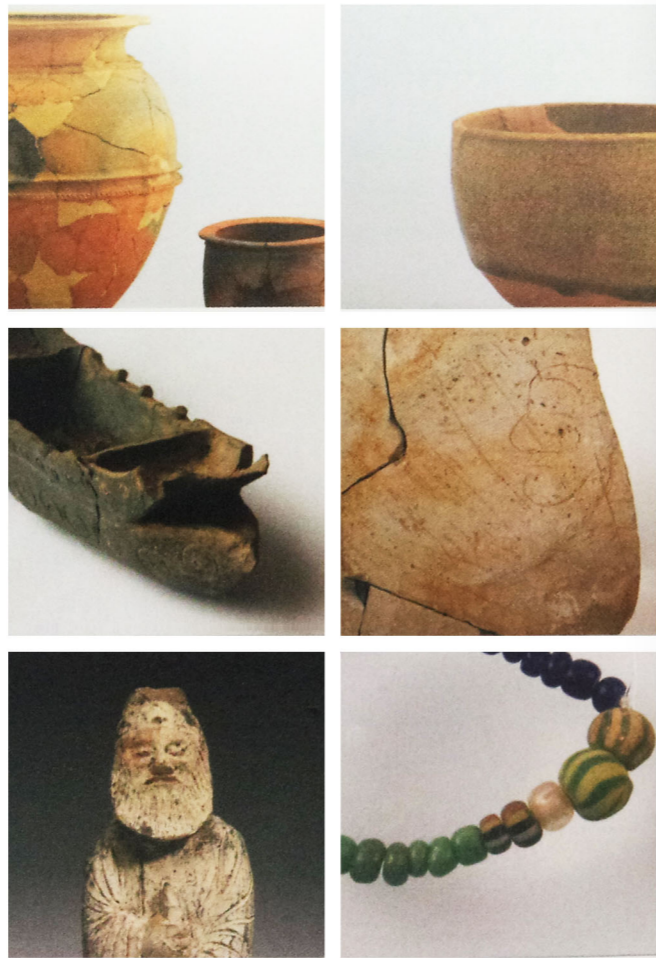


기획전시

개관기념 기획전 『고대의 항구』 2012.7.9(월)~8.26(일) /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전시장 전경



고대의 항구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유물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항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점이기도 하고, 귀향의 안도감을 주는 도착점이기도 하다. 그렇게 항구는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다. 이러한 항구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함께 존재해 왔고, 역사적으로 항구가 발달하여 대내·외 교류가 활발할 때 국가도 크게 발달한 시기였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립해양박물관 개관기념 “고대의 항구” 전은 고대 국가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항구와 다양한 교류를 위해 일찍부터 해양으로 눈을 돌린 선조의 진취적인 기상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시는 고대의 항구-김해 장유면 관동리 유적, 해양 신앙, 항해의 흔적, 항구의 생활, 해양 실크로드, 대외교역의 테마로 구성되었다. 전시장에서는 각각의 테마별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11개 기관에서 대외 교역의 산물인 로마 유리 그릇 등의 진귀한 출토유물 80여 점과 김해 장유면 관동리 유적의 항구 시설 재현,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여러 가지 향신료 등을 만나볼 수 있었다.

또한, 경주 용강동 고분에서 출토된 서역인 토옹과 설화로 전해지는 처용은 유물과 영상자료를 살펴보면 고대부터 해상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역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김윤아(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테마전시

바이킹, 바다에로의 위대한 도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여러 유물들을 수집하면서 바이킹 복원선과 관련 자료, 곤돌라선 등 외국 전통선박은 물론 세계 최초의 해도첩, 항해도구 등 다양한 외국의 해양자료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양문화를 넘어서 전세계의 해양문화를 수집·연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에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의 해양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내의 해양문화와 비교 전시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 중 바이킹에 대해 소개하는 테마전시를 개관에 맞추어 준비하였다. 바이킹은 흔히 9세기 이후 유럽사회에서 노략질하던 해적들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들의 실제 모습을 소개해 주고 싶었다. 그렇다면 바이킹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았을까를 알려주는 것이 이번 테마전시의 주목적이다.

‘바이킹(Viking)’은 만(灣)이나 내포(內浦)라는 뜻을 가진 스칸디나비아어 ‘vik’에서 유래된 말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노르만(Norman)족을 가리킨다. 그들은 침략자이자 정착자, 약탈자이자 탐험자, 정복자이자 상인, 파괴자이자 창조자였다. 8세기 후반부터 11세기 후반까지 약 3백년동안 유럽의 다른 지역을 습격하고 이주하면서 ‘바이킹 시대(Viking Age)’를 열었다. 배를 타고 무리지어 이동하면서 부유한 교회를 주로 약탈하였기 때문에 성직자들에 의해 해적들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바탕으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교역을 하였다. 1000년경 노르웨이의 레이브 에릭슨이 콜럼버스보다 500년이나 앞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바이킹은 야만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들은 서유럽 최초의 의회를 만든 민주사회의 구성원들이었다. 바이킹은 지배계급으로 야를(Jarl, 귀족), 상인·농부·기술자 등의 카를(Karl, 자유민), 최하위층 트랄(Thrall, 노예)의 세계급으로 구성되었다.

중세 스칸디나비아에서는 행정과 치안의 기본단위로 지방 공동체 의결기구인 싱(Thing)이 있었는데, 지역의 자유민(Karl: 농부나 상인, 기술자 등)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였다. 870년대 중반 노르웨이인들이 정착한 아이슬란드에서는 전국에 4개의 싱이 있었고,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알싱(Althing)이 있었다.



바이킹에게 배는 세력을 확장하는 도구이자 상징으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바이킹선은 길이가 길고 폭이 좁았지만 선체가 가벼워 내륙의 얇은 강도 쉽게 다닐 수 있었으며 돛과 15~30쌍의 노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태양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나침반과 천체에 의존하여 항해하였다. 바이킹은 먼 바다를 여행할 때 말려 소금에 절인 물고기나 육류를 먹었다. 또 바이킹선은 선실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2인용 침낭을 사용하여 갑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수 밖에 없었으므로 기상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처럼 바이킹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나가며 바다를 개척해 나갔다.

이렇듯 바이킹은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가지고 자신들이 습격한 곳에 정착을 하고 교역을 하면서 새로운 도시들을 교역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양과 대륙을 잇는 광대한 교역망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상업공동체가 유럽의 문화공동체로 변화하고, 유럽의 대표적인 상업동맹인 한자동맹(Hanseatic League)이 결성될 수 있었다. 유럽사회를 공포로 내몬 무자비한 야만인으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지만, 실제 그들은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며, 뛰어난 해상 교역활동을 했던 바다의 개척자였다.

바이킹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에 테마전시에 보여주는 유물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바이킹이 어떠한 민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하였다. 부족한 점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 후예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박물관들과 협조하여 바이킹관련 대형기획전을 2~3년 뒤에 개최할 계획을 실행해 보려 한다.

이형기(국립해양박물관 전시팀장)

소장품 이야기

해도첩<바다의 신비(Dell'arcano del Mare)>



소장품명 | 해도첩 <바다의 신비(Dell'arcano del Mare)>, 연대/국가 | 1646년 / 영국
제작 | 로버트 더들리(Sir Robert Dudley, 1574-1649년)

1646년에 만들어진 해도첩 <바다의 신비(Dell'arcano del Mare)> 초판본이다. 이처럼 해도만을 엮어 해도첩으로 제작한 것은 이 책이 최초이다. 이 책을 만든 로버트 더들리는 유명한 탐험가이자 지도제작자로, 1605년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이주하였다. 이탈리아에서 그는 자신의 탐험 경험을 바탕으로 메르카토르 도법*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해도를 직접 그려냈다. 그는 1645~46년에 걸쳐 이 해도첩을 제작하면서 3책 6권의 내용 속에 해도뿐만 아니라 해도작성법, 그가 디자인한 5등급의 해군기지 도면 등 '해양 백과사전'으로도 불릴 만큼 다양한 지식을 실고 있다.

메르카토르(Mercator) 도법
메르카토르 도법이란 네덜란드 지도제작자 메르카토르가 1569년 창안한 근대 지도제작법으로 구형의 지구를 원통형으로 인식하여 지도를 그리는 방식이다. 위도와 경도가 나란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길이와 면적의 왜곡이 심해진다. 하지만 지도상의 두 지점의 각도는 실제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도법으로 제작된 해도는 항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바다의 신비>에 수록된 우리나라가 포함된 해도

이 해도첩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서양인이 만든 지도 중 두 번째로 오래된 '한국해' 표기 지도(해도)를 실고 있다. <바다의 신비>에 수록되어 있는 해도 중 우리나라가 포함된 해도는 2장이며, 이 해도들 모두에 동해를 '한국해(Mare di Corai)'라고 표기하고 있다. 마누엘 고디유가 1615년에 그린 아시아 전도(Mapa da Asia) 이후로 가장 오래된 한국해 표기 서양지도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서양에 알려지던 시절부터 서양인들은 동해를 한국해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해도첩은 유럽과 미국의 대학 도서관과 박물관 등 전 세계에 약 10세트 정도 소장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우리 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전시되고 있는 이 책은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한 유물이다. <바다의 신비>은 국립해양박물관 3층 상설전시실 '해양플랫폼' 영역에서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사람들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에 부쳐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한 지도 어느덧 세 달이 되어간다. 1992년 당시 해운항만청에서 국립해양박물관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부산시에 내려주면서 진행된 박물관 건립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06년 12월 국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의 국회결결 시 부대의견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을 BTL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면서 비로소 본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후 2009년 12월에 착공 후 2012년 7월 9일 역사적인 개관을 하게 된 것이다. 모든 해양인들의 숙원이었던 국립 해양박물관은 이렇듯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만큼 아침 출근길에 보게 되는 박물관의 모습은 언제나 감개무량하다.

필자가 처음 국립해양박물관 이름을 듣게 된 것은 2003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채용면접을 할 때였다. 질문 내용이 “해양수산부에서 국립해양박물관을 짓게 된다면 그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였다. 마침 면접준비차 올라가는 길에 신문에서 새만금 방조제에 유치할 시설로 해양박물관이 거론되었던 기사를 보면서 위치가 그리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것이 면접에서 나왔던 것이다. 당시 나의 답은 새만금은 그리 타당하지 않고, 관람객 유치를 생각한다면 수도권이 좋겠지만, 해양박물관이라 한다면 해양수도를 표방하는 부산시에 건립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대답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발령을 받고선 박물관 시설사업 기본계획 숙지부터 시작하여 한가지 한가지씩 박물관 건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애초 6개월 정도에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시설관리만이 아닌 콘텐츠운영까지 민간운영사에 맡기는 최초의 사례인 터라 협상에서 많은 난항이 있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신설 박물관으로서 박물관 공사와 유물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는 초유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사실 박물관은 충분한 수량의 유물이 확보되면 유물의 연구와 조사를 통한 전시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건축하여야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박물관을 짓고 싶은 주변의 요구에 공사와 유물수집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유물수집은 사라져가는 해양문화유산의 수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유물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박물관 전시콘셉트를 잡고, 그에 따른 세부 주제를 정하면서 수집된 유물을 거기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것이 타당하고의 여부는 검토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 BTL 사업방식의 한계가 되지 않으나 생각한다. 또한, 건립 실체가 보이지 않으면 유물수집예산 수립 자체가 곤란한 국가재정시스템 하에서도 일부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전시주제를 다듬고, 그 주제에 맞는 유물을 지속해서 연구·조사하여 수집유물 중에서 해당하는 것은 자체유물로, 그렇지 않으면 소장처를 파악하고, 그 기관에 협조를 구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바다, 우리의 미래’라는 박물관 전시콘셉트와 세부 주제에 어울리는 유물을 최선을 다해 전시하여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2010년부터 유물을 수집했다.

수집된 1만 2천여 점의 유물이 아직 많지 않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유물도 다수 확보하였다. 세계최초의 해도첩 초판본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최대급으로 복원한 조선통신사선,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를 본 적이 없는 함경도해안실경지도첩,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최고(最古)의 조행일록, 유물해제작업을 통해 자세히 그 내용을 알게 될 수많은 고문서와 고서적 등이 그것이다. 박물관 학예실에서는 이러한 유물 한 점 한 점을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밝히고 학술보고서와 전시를 통해 세상에 공개하려 한다. 그 걸음이 아직은 미약하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세계적인 해양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립해양박물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형기(국립해양박물관 전시팀장)

박물관 교육행사

전시연계프로그램

키즈 퍼포먼스

상시 (1일 4~5회) | 유치부 | 2층 어린이박물관

해양을 주제로 한 마술 공연을 통해 어린이박물관 전시코너의 이해를 돕고 해양에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양생물 돋보기

7~12월/주말/11:00~12:00, 15:00~16:00 | 유치부/초등저 | 3층 수족관

터치볼 체험 및 배양수조의 생물에 대해 알아보고 현미경을 통해 해양생물을 관찰해 봅니다.

남극세종과학기지 화상통화

격주 토/11:00~11:30 | 전체 | 4층 해양과학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계시는 연구원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말체험프로그램

총무공 이순신, 달려라 거북선!

7~12월/격주 토/14:00~15:30 | 초등학생 | 제3강의실 | 재료비 개인부담

이순신 장군의 업적 및 임진왜란과 거북선에 대해 알아보며 거북선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지키자 우리땅 독도!

7~12월/격주 토/14:00~15:30 | 초등학생 | 제3강의실 | 재료비 개인부담

독도의 역사, 지리, 자연환경 등에 대해 알아보고 독도모형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화석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7~12월/격주 토/14:00~15:30 | 초등학생 | 제3강의실 | 재료비 개인부담

화석의 생성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만들어 봅니다.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7~12월/격주 일/14:00~15:00 | 초등학생 | 제3강의실 | 재료비 개인부담

전문도예강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흙을 빚어서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사이언스 바다누리

8~12월/매주 목/16:00~17:30 | 초등학생 4~6년 | 제3강의실

해양과학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어려운 과학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며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장답사 프로그램

이순신이 선택한 땅 통영, 그의 바다를 걷다.

10월 27일(토) | 경남 통영일대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역사와 흔적이 남아있는 통영일대를 탐방하며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1. 2층 어린이박물관 키즈퍼포먼스
 2. 4층 해양과학 남극세종과학기지 화상통화
 3. 지키자 우리땅 독도!
 4. 화석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박물관 소식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식 2012. 7. 9.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이재균 국회의원, 학계·예술계 관계자와 부산 시민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홍보대사 위촉 2012. 8. 9.

국립해양박물관의 첫 홍보대사가 탄생했습니다. 사교적인 성격과 뛰어난 어학실력을 보유한 신새롬 홍보대사의 활동을 지켜봐주세요.



반갑다, 새식구 곰치 2012. 8. 9.

상어와 곰치, 제비활치, 썬베갯뱀, 자이언트그루퍼가 국립해양박물관의 새식구가 됐습니다. 새로운 식구들로 더욱더 볼거리가 다양해진 수족관을 많이 찾아주세요.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과천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2012. 9. 21.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과천과학관이 '해양과학 문화 확산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해양과학교육진흥을 위한 전시 및 행사를 공동 개최·협력 방안 등을 앞으로 모색 할 예정입니다.

관람후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2. 8. 21.

지난 주말에 박물관에 방문했습니다. 후기를 보니 아무래도 많이 막힐 껍 같아 아침 일찍 서둘러 갔지요^^ 다행히 아침시간이라 생각보단 많이 혼잡하진 않았어요~ 일단 박물관 내부도 외부도 탁 트인 듯한 느낌을 받았구요 타 박물관에 비해 밝아 아이들에게도 좋았던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4층 가서 4D 독도영상부터 관람 했어요 무료라 사실 기대는 안했는데 내용이 교육적이라 좋았구요 영상 퀄리티도 좋았답니다 사실 저도 몰랐던 독도의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애들도 집에와서 독도얘기를 하는 거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 아쉬운점이 있다면 예약이 안되서 현장에 빨리 가야한다는거^^;; 그래도 무료니까 그 정도는 감수~ 아이들이 초등학교생이라 어린이박물관 빼고는 전부 다 관람 했구요 3층 유물전시실이랑 수족관 그리고 이것저것 체험하는 코너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인지 여기저기 점검중인 시설들은 좀 안타까웠어요~ 사람이 많다보니.. 고장이 아닐수가 없겠더라고요 1층에 도서관은 그냥 살짝만 둘러 봤는데요 조금 더 한산해지면 책 보러 다시 오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책 안 봐도 쉬기 좋아 보이긴 했어요^^ 박물관 밖으로 경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더워도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산책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사실 박물관안에는 플래시 사용금지라 사진을 많이 못찍었거든요~~) 야외에도 부표나 잠수정 등의 전시물들도 적당히 배치되어 있었네요..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구요 아이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신선택물관이라 여기저기 조금 부족한 모습들도 보였는데... 점차 내실을 갖춰가겠죠? ^^ 저는 추천 꼭 ~! 입니다

이미영(부산 사하구 괴정동)

주말 나들이로 적극 추천합니다! 2012. 9. 12.

인터넷으로 박물관 후기를 보고 불만글이 많길래 사실 기대를 별로 안하고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경관이나 위치가 참 좋더라고요.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몇가지 더 좋았던 점은

첫째로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설명에 대한 도움을 받을수 있고, 보기도 좋았습니다. (참고로 다른곳은 대부분 자원봉사자 분들이신데 이곳은 젊은 직원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있더라고요.)

둘째로 주말에 바다에 관한 영화상영을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시설도 너무 크고 좋고 영화도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온가족이 영화를 보면 족히 3~4만원 이상인데..한시간 이상을 보고 나니 참 좋네요~

그리고 역시나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곳은 3층 수족관과 터치풀이었는데..규모가 크진 않아도 무료로 볼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 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설 전시장에 동해와 독도 관련한 유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참 소중한 유물이 부산이 있으니 든든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오랜시간 많은 볼거리와 체험을 하고 뿌듯하고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주말 가족나들이와 아이들 교육으로 이보다 더 좋은곳이 또 있을까 생각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해양박물관 적극 추천합니다!!

우주연(부산 남구 용호동)

